

우수상 수상작: 다시금 또 살겠노라!

부디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장장 7시간의 큰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고비를 넘기신 엄마께서 하신 말씀이다. 죽을만큼 아프고 무너지고 쓰러져도 희망의 기도를 하셨던 엄마가 오죽하면 이제 데려가 달라는 기도를 하시는건지 그 말에 우리 가족은 화를 낼 수도, 별 말을 다한다고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도, 다 잘 될꺼라고도 그 어떤말도 할 수가 없었다.

작년 봄, 피가 자꾸 비친다는 말씀에 동네 산부인과를 찾으셨고, 오래전부터 있던 자궁근종이 많이 커져 있으니 큰 병원엘 가보라는 권유에 대학병원에 가게 되셨고 자궁을 드러내는 개복 수술을 하게 되셨다. 제작년 봄 여동생이 갑작스런 유방암으로 수술과 항암, 방사선을 겪은 터라 연 이은 엄마의 암 진단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흔히 들어 봤던 자궁경부암일거라고 생각했는데 조직 검사 결과 단 한번도 들어 보지도 못했던 희귀암, 매우 공격적인 자궁육종암이라는 것이었다. 인터넷에 암에 대한 정보를 찾고, 암환우들의 경험담을 찾아 볼수록 불안과 공포가 밀려왔다. 엄마의 지난날들이 생각났다. 우리 4남매 공부시키기 위해 시골에서 올라와 좁은 방 한칸에서 콩나물을 손수 키워 시장 바닥에 앉아 천원, 이천원씩 소리 내어 팔던 엄마. 가게 하나 얻을 돈이 없어 반찬을 만들어 모퉁이 한 쪽에서 팔 때에는 혹여나 친구들에게 들킬까봐 그런 엄마를 모른척하고 지나갔던 지난날 어리석은 나까지도 생각이 났다. 쌀 가게에 분식집에 음식점에 치킨 집에 평생 안해본 장사가 없을 정도로 엄마란 이름표만 달고 사시면서도 주위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 못하고 어려울 적을 떠올리시며 기꺼이 도와주셨던 참 착한 엄마였다. 젊으셨을적 너무 고생을 많이해서였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뭘 잘못 살아 왔냐며 분노와 원망도 했다가 또 수용도 했다가 또 불안도 했다가 엄만, 암환자들이 겪는 심리 상태 그대로를 마치 정해진 수순인마냥 거처셨다. 그 고통은 비단 암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마찬가지로였다. 행여 지난날 엄마를 속 썩이게 했던

나의 말과 행동들 때문에 엄마에게 이런 무서운 병이 생긴 건 아닌지 너무 후회도 자책도 됐다.

1년전 자궁 전체를 드러내는 수술을 받으셨고, 그 후로 3개월에 한번씩 CT와 PET-CT, 각종 검사를 하던 중 6개월 되던 때 복막과 골반, 척추뼈에 전이가 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와중에도 엄만, 초등학교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계셨다. 단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으셨던 내 엄마. 항암을 하면 최대 2년을 살고, 항암을 안하면 6개월 남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래도 해 볼 항암제가 있다니 머리 좀 빠지면 어때, 엄마 잘 먹고 체력을 키우면 부작용은 조금 덜할꺼야라며 하나하나한 말들로 엄마에게 희망을 드렸다. 눈이 많이도 내리던 12월 31일. 누구는 한 해를 보내며 다시 올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는 날이다. 그러나 그날 엄마는 정상세포까지도 다 죽인다는 무서운 첫 항암을 시작했고, 암 병동에서 한 해를 보내고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로 새로운 해를 맞이했다.

말로만 듣던 항암 부작용들. 퇴원한 다음날부터 열이 나서 응급실로 향했고,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 또 다시 응급실행. 구역질, 구토, 빈혈, 구강염, 부종, 피로, 손발저림, 설사, 검게 변하는 피부색, 가장 힘들게 하는 건 극심한 변비와 배를 뚫고 나오는 듯한 통증으로 밤새 신음하며 부작용이란 부작용은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다 겪어야만 했다. 무려 10kg이상이나 체중이 감소하여 목욕을 시킬 때면 행여 살이라도 벗겨질까봐 살살 문지르고 뒤에선 한 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만 했다. 엄마의 앙상한 몸을 보면서 가슴이 쥐어 짜듯이 쓰라린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었다. 항암하는 내내 두려운 거 투성일때마다 담당 교수님과 간호사 선생님들께선 가족처럼 보듬어 주셨고, 닦아주셨고, 이겨낼 수 있다고, 아주 잘 하고 계시다고 엄마를 위로해 주셨다. 그 말들과 칭찬이 두려움을 극복해 가며 치료를 받게 하는 큰 힘이 되었다. 항암 6차까지의 치료일정이었지만 그 사이 엄만 극심한 암성통증과 뼈통증까지 동반돼 5차까지만 하고 복막수술을 받게 되셨다.

2시간여의 수술시간은 무려 7시간 가까이 늘어났고, 수술하신 교수님은 우리 가족을 불러 1시간 가까이 걸쳐 장황하게 엄마의 수술상황에 대해 설명주셨다. 현재 폐와 뼈 여기저기에도 전이가 보인 상태이지만 눈에 보이는 암덩어리는 다 제거를 했으니 몸을 추스린 후 또 다시 항암과 방사선을 시작해 보자는 말씀이셨다. 최선을 다해보자는 그 말씀이 또 한번 내 엄마를 살리게 해 줄 희망의 끈이 되었다. 세 분의 교수님들이 협진해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얼마나 애쓰셨는지 고생하셨다는 말이 절로 나왔고, 또 구구절절 설명 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부터 알

고 있었다. 예후가 좋지 않은 불치병이라는 걸.. 그래도 엄만, 77세란 고령의 나이인데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아주 잘 견뎌내 오셨던 것이다. 명치끝부터 아랫배까지 무려 30cm를 절제해 여러 개의 장기들을 잘라 이어주고 암 덩어리들을 제거한 큰 수술로 밤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고비의 그 날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혹여나 병원에서 나쁜 소식이 전해 올까봐.

그런데 그 어렵다는 큰 수술도 두번씩이나 잘 이겨 내고 고비도 넘기신 엄마가 이젠 데려가 달라는 기도를 하염없이 하신다. 되려 우리들이 더 힘들어 할까봐 '엄만, 괜찮아. 견딜만해. 너희들이 있어 엄만 행복해' 라는 말들로 우리를 안도시키셨었는데 엄마의 한숨섞인 그 기도 소리는 온종일 내내 귀에서 맴돈다. 장사할 적 손이 베이고 불에 데이고 피를 흘려도 아프다는 내색 한번 안하시고, 힘들어도 늘 긍정의 말과 미소를 띠었던 엄마에게 너무도 낯선 말과 한숨소리였다. 가슴이 쓰라리다못해 갈기갈기 찢어지고, 눈물이 흐르다 흐르다 가슴속까지 깊숙히 적셔졌다.

암병동 병실도, 병원내 동선도 이젠 너무 친근하다. 4인실 병실엔 각각의 환자들이 다른 병명들로 치료를 받고 있다. 밤새 토하는 환자, 설사를 하는 환자, 신음하는 환자등 보호자로서도 자다깨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 간병을 한다는 건 다소 힘들긴 하지만 살아 내려고, 살고자 애쓰는 그들을 보면 잠깐씩 잘 수 있다는 것만도, 걸을 수 있다는 것만도, 하늘을 쳐다볼 수 있다는 것만도, 먹을 수 있다는 것만도 이 지극히도 평범했던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으로 숙연해지고 겸손해진다.

"엄마, 그 힘들다는 항암도, 수술도 지금까지 아주 잘 이겨내고 계시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 보아요. 분명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엄만 그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이니까요. 그리고 이 딸 걱정은 마세요. 엄마가 이렇게 잘 키워 주셨고, 또 엄마가 내 엄마여서 난 너무 너무 감사해요" 늘 그래오셨듯 힘든 지금이 지나고나면 또 다시 희망을 말씀 하실꺼다. 엄마의 오늘 이 기도를 내어 주고 '다시금 또 살겠노'라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대해 본다. 그리고, 이 글을 쓰면서 애써 주신 삼성병원 김병기 교수님과 정성으로 돌봐주신 서병동 간호사선생님들 노고가 많으시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아울러 암 환자와 가족분들에게도 곧 머지않아 어둡고 긴 터널의 끝은 오고, 희망찬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조심스럽게 건네 본다.